

**6월 / 9월 모의고사로
재진술 연습하기**
부제 : 나열된 정보 처리하기

“과거제처럼 정보가 나열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다 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따로 편집해서 올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 - 과거제

9월 모의고사 - 예술

지문과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놓았으니, 스스로 같은 말들을 모두 **화살표로** 이어 보거나, **옆에 써 보시길** 바랍니다.

두 지문 모두 재진술을 초점으로 수없이 나열된 정보를 납득하며,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를 나열하는 식의 지문은 **절대로 다짜고짜 정보를 들이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개념, 정의의 워딩을 통해 납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방론이 **왜** 모방론인지, 형식론은 **왜** 형식론인지 생각하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과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¹⁾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즈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나)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비평가 벨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과거제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세습적 권리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또한 핵심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 과거제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제 때문에 신분, 추천보다 시험성적이 중요해졌다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 & 추천'을 말 그대로 신분과 추천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신분 & 세습 = 세습'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정보량을 줄여야 해요.

2문단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과거제의 공정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겼네요. 위 문단에서 말한 과거제가 합리적이라는 서술과 같은 말이죠?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습니다. 핵심이 '과거제'에서 '과거제의 영향'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핵심 : 과거제의 영향 (항상 위, 아래의 핵심과 연결해 가며 읽어야 합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과거제가 일부 제한이 있긴 했다고 **부분동의**를 하고 있군요. 많은 곳에서 배웠었죠? 목적론, 우주론 등.. 어쨌든 그래도 공정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같은 말임을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익명성의 확보 = 공정성'으로 봐야겠죠? 정보량을 계속 줄이세요.

3문단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네요. 당연히 긍정적 측면일 겁니다.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네요? 공정하니까 공부할 동기가 생겼겠죠. 자꾸 '공정함'이라는 키워드와 묶어 가야 합니다.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 = 기회 증가 = 사회적 유동성 증가 = 익명성의 확보> 모두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핵심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 (공정성과 연결되겠죠.)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위 문장의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대한 내용이겠죠? 지시어는 항상 살려서 읽으세요.

교육이 확대됐으니 당연히 지식인 집단이 늘어났겠죠?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고전, 유교 경전을 학습하니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가 늘어났나 봅니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정보를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랑 연결지며 읽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엥?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특권을 부여했네요?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글을 바탕으로 한 상식적인 생각은 '시험'을 '통과'해야 관료가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특이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에 나오겠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를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특권을 받고, 지방 사회에서 활동하니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었겠군요.

4문단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가 좋은 제도였으니 오래 유지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독해이고, 우리가 잡아내야 할 것은 문장에 나오는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는 정보로, 또 다른 워딩을 대체하면서 정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왕조가 교체돼도 엘리트층이 연속되었다는 말은 능력있는 관리들이 꾸준히 선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이러한'이라는 말은 '엘리트층의 연속성'이겠죠? 좋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뽑히니 관료제가 유지될 수 있었겠죠. 이 문단의 첫 문장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제가 기여한 사회적 안정성이죠.** 이 문장들을 모두 다른 정보로 처리하고 있으면 독해력을 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5문단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아 그렇군요.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제가 유럽에 퍼졌답니다. 우주론에서 서구의 우주론이 중국에 전파되어 미쳤던 영향이 떠오르죠? 핵심이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에서 '과거제의 전파'로 바뀌었네요.

핵심 : 과거제의 전파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유럽 계몽사상가들이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실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의 지식 = 과거제> vs <귀족의 세습적 지위 = 세습> 으로 읽어내셨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역시, 과거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과거제를 반영한 제도가 도입됐네요.

(가)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과거제의 장점에 대해 서술한 지문이었네요. 절대 어렵지 않았고, 정보량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보가 너무 나열돼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제'와 '세습'의 대립을 중점으로, 과거제의 가장 큰 장점인 '공정성'을 중심으로 핵심을 잡고, 재진술을 파악하며 읽어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럼 (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

1문단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유형원의 공거제가 핵심인가 봅니다. <능력주의,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라는 말은 당연히 (가)와 연결지어서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읽혀야 합니다.

핵심 : 공거제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살리자는 개혁론이 등장했다네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습 = 봉건 = 개혁론>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수식은 '≠', '반추위', '좌인의 총체주의' 지문에서 배웠죠?

그나저나 공거제에 대해 설명하나 했더니 아닌가 봅니다. 핵심은 자주 바뀌어도 됩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의식하며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염무라는 인물은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고 = 과거제와 같은 제도를 유지>, <지방관은 검증기간 후 지위를 평생 유지, 세습의 길 = 세습> 하자고 주장했네요.

항상 말했듯이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별개로, 상층에는 과거제를 유지하자고 했으니 예외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로 나온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보니까 핵심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핵심 : 봉건적 제도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습)

핵심은 꼭 한 단어,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 과거제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생각만 가능해도 문제 없습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황중희라는 인물은 <관료가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 후 추천 = 세습>하자는 주장을 했네요. '벽소'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세습'과 같은 말임은 인지해야 합니다.

2문단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등장 배경이 존재하나 봅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과거제의 개선 의무가 있었군요. 물론 이는 위에서 서술되었던 '세습, 봉건' 등의 부활일 것이구요.

핵심 : 개혁론(세습, 봉건 등)의 등장 배경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시험 방식에 부작용이 있어서 과거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나 봅니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과거제처럼 경쟁하다 보니 <깊이 있는 학습X = 형식적 학습 = 인재들의 재능 낭비>가 생겼군요. 우리는 이 모두를 같은 말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 <과거제의 문제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량을 줄이세요.

선지를 읽고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 선지라면 이 부분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 과거제의 문제점 (핵심을 항상 위, 아래랑 엮으라 했죠? 이 핵심은 위에 나오는 핵심인 '개혁론의 등장 배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인성, 실무 능력 평가X = 과거제의 문제점>으로 읽어야죠? <익명성에 대한 회의 = 과거제에 대한 회의>로 읽어야 하구요.

3문단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관리한테까지 연결되었군요. 핵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핵심 : 과거제로 임용된 관리에 대한 비판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과거제의 특징이었던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답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장이 매우 길지만,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키워드로 이 문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위 문장에서 분명히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한테도 적용되었다.>고 나왔으니 말이죠. 분명히 그와 관련된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X, 성과를 내야하는 관리들은 성과를 위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중시했네요. 말 그대로 **능력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이죠. **능력주의**가 관리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개인적 동기 = 능력주의적 평가에서의 좋은 평가에 대한 욕구 = 과거제> vs <공공성 = 세습 = 봉건 = 개혁안> 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 개인적 동기 = 과거제>이죠?? 그냥 읽문장과 같은 말입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위에서 했던 말들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거제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 출세 지향적 = 능력주의>, <세습 엘리트 =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 =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이라는 것이죠.

절대 정보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4문단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역시 문장이 길지만, 하나하나 재진술을 잡아가면서 읽어봅시다.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 봉건, 세습 제도>이라는 말이겠군요. <그 외의 정치 체제 = 과거제 외의 정치체제>일 것이구요.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 = 공공성 = 세습 = 봉건 = 개혁안>은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계속 그 말밖에 안했는걸요?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봉건적 요소 = 세습>의 회복이 단순히 복고적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네요.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 과거제의 부작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 = 봉건 제도 = 세습>를 활용해서 보완하고 싶었다는 의미이군요.

절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나열된 지문도 아니구요.

재진술과 비교/대조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불친절한 서술도 없기에 아직 독해력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문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 총평에서 올해 포인트는

1. 비교 / 대조
2. 세밀한 선지 구성
3.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례증감 (문제 포인트)
4. 불친절한 서술 (이건 2020 학년도부터 항상 있어왔죠?)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중 (가) vs (나)를 통해 1번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유형은 9평은 물론 수능에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까다로운 비교지점을 통해 지문 이든 문제든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습해두시길 바랍니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의 정의>가 **주제**인가 봅시다. 항상 독서를 읽을 때는 이 지문이, 이 문단이 어떤 정보를 제시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주제**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론>을 주장했네요. 대상과 그것에 대한 재현, 여기서 재현은 예술을 뜻하겠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재진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대상과 재현이 닮아야 한다는 게 모방/론이네요. 닮아야 하니까 ‘모방’론이겠죠. 꼭 이렇게 개념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야 합니다. <재현의 / 투명성 / 이론> 역시 마찬가지이죠. 예술이 대상을 닮아야 한다는 즉, 모방해야 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재현이 대상을 투명하게 모방해야 한다는 이론이 ‘재현의 투명성 이론’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방’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주세요. 여기서 **모방**을 해야 **예술의 정의**에 부합하나 봅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가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 = **모방**을 하지 않아도 예술로 인정>해주게 되었네요. 그런 이론이 <낭만주의 사조>인가 봅시다. 감정 표현을 중요시 ‘하니까’ <낭만/주의>인가 보네요. 꼭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예술의 정의인 모방에서 벗어난 낭만주의 예술이 등장하면서 예술의 정의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네요. 계속 **예술의 정의**라는 **주제**와 엮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정보는 <모방 → 낭만주의>일 것이구요.

2문단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콜링우드라는 사람은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 표현/론>을 통해 낭만주의 예술이 등장하면서 생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네요.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한다는 워딩을 **예술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콜링우드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니까 표현/론인가 봅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진정한 예술 작품 = 예술의 정의>이죠? 예술의 정의는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 = 모방>이 아니라 <정신적 대상 = 감정>이네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개념들로 재진술 할 수 있는 개념은 계속 재진술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 = 감정 = 표현론>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나왔네요. 모방론과 낭만주의 예술로부터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비교/대조’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모방/론 vs 낭만/주의>로부터 <표현/론>과 <형식/론>이 나왔으니, 표현론과 형식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중해봅시다.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문장이 세 줄을 넘어가는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의미파악이 한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세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 = 의미 있는 ‘형식’이라는 수식된 정의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아무나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은 아니네요. 무언가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알아낼 수 있는 어떠한 예술적 형식인가 보네요. 그러기에 <의미 있는 / 형식>이겠죠. 아무나 알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비평가들에게 미적/정서를 유발한다면 그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네요. 즉, 어떠한 의미 있는 **형식**을 알 수 있는 비평가들이 인정해야 그것을 예술로 보았다는 형식/론의 **예술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3문단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변기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 되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변기와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또다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네요. 즉, 형식/론이 부정당한 것입니다. <모방론 → 낭만주의>와 <형식론 → 샘(변기)>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표현/론과 형식/론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두 가지 이론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집중하며 갑시다.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의식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예술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다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답니다. 정의할 수 없으니까 <예술 / 정의 / 불가론>이겠네요. 납득해야 합니다. 모든 예술이 어떠한 공통적 요소를 가지는 것은 힘들죠. 따라서 정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걸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걸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문의 서술은, 모방론이든, 표현론이든, 형식론이든 무언가 예술을 정의하고는 있지만, 그 이론만으로 예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 <예술/정의/불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재진술 합시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예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랑 같은 말이지요?

4문단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변기가 형식론을 공격함으로써 나온 또 다른 이론은 <제도/론>이네요. 제도론이 왜 제도론인지 납득해 봅시다. 여기도 수식된 정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쪽 읽은 뒤에 다시 문장의 첫 부분으로 돌아와서 납득하고 진행해야 해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 = 제도적으로 예술이라고 정의>랑 같은 말이지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 감상의 / 후보 / 자격을 부여 받았다는 말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 평가적 이론>이라네요. 일단 문장을 잠깐 끊고 수식된 정의를 납득부터 하고 갑시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니, 예술이라고 평가하니까 평가적/이론 이겠네요. 위에서 보았던 모방, 표현, 형식론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진 예술 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의 공통점, 차이점을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예술 정의 불가론은 예술에 대해 아예 정의를 안 해버리는 이론이고, 제도론은 어떤 기준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을 띄고 있습니다. 애초에 형식론이 공격받으면서 “형식이 완전히 똑같아도 예술이라 못하는데, 뭐가 예술임?”이라는 공격에서 나온 이론들이기에 예술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측면은 같은 것이죠. 실전에서는 공통점, 차이점만 찾더라도, 분석 후에는 글의 구조상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평가할 수 없다는 제도/론은 <일정한 절차와 관례 = 제도>를 거치기만 하면 예술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류적/이론입니다. 계속 ‘납득’하세요. 생각하시구요.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의 의의를 말하고 있네요. (의의 의의 ㅋㅋㅋㅋㅋ 스)

(나)
1문단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제가 실화냐(화작교재)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가)와 (나)는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보량이 줄어듭니다. (가)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었죠? 여기는 **예술의 감상과 비평이 주제**인 가 봅니다. (가)에서 계속 연결해 가며 읽었듯이, 여기서도 연결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예술의 감상과 비평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말이죠?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벌써부터 나누고 시작하네요. 2020학년도 09월 비콘 지문을 보시면 같은 방식의 서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문 아니라도 옛날 지문에는 이런 구조의 글이 많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가 하나씩 설명되겠구나. 공통점, 차이점을 잡고 ‘비교/대조’ 해야지!”하고 생각하셔야겠죠? <맥락/주의는 예술과 관련된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 혹은 평가를 할 거고>, <형식/주의는 뭔가 형식/론이랑 비슷할 거 같죠?>, <인상/주의는 인상에 남는 걸 중심으로 비평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문단

㉠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 = 맥락>이죠? 작품의 창작될 당시의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하나 봅니다. 이렇게 정보량이 쏟아지는 인문지문은 보통 이론들의 이름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줍니다. 납득하면 까먹지 않기 때문이죠. 1809의 하이퍼리얼리즘, 1811의 목적론 등을 보시면 납득이 갈 거예요.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 근거로 삼는다.

똑같은 말이네요.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 맥락>이니깐요. 이런 정보들은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세세하게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하면 돼요.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 구체화하며, ~ 반영한다 = 작가가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랑 같은 말이죠? 정말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맥락을 고려할 때, <시대적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모두 고려하네요. 외면과 내면이 나뉘는 것이기에, 의식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다만 둘 다 맥락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맥락이 ‘상위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핵심 정보라는 거죠.

3문단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맥락주의가 작품에 집중하지 않고 ‘맥락’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네요.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서술 방식 같지 않나요? <모방론 → 낭만주의>, <형식론 → 샘(변기)>와 같은 방식의 서술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주의는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 맥락>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것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네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형식주의이고, 맥락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아주아주 당연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에서 나왔던 형식/론이 떠올라야 합니다. 형식론도 고유한 ‘형식’을 중요시 했던 이론이니까요.

프리트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형식주의 비평가니까 <조형 요소·조형 원리 =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겠네요. 사물, 인간, 풍경은 묘사되는 대상일 뿐이지 형식이 아니니까요.

4문단

㉠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인상/주의를 시작하기 전에, 형식주의랑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지 의식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상/주의는 모든 분석적인 비평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규칙이나 자료로 판단할 수 없대네요. 또 무언가가 생각납니다. <예술 / 정의 / 불가론>, <제도론>이 떠오르네요. 둘 다 예술을 어떤 특정한 기준, 관점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이론이었으니까요. (나) 부분의 <형식주의, 인상주의>에 대한 서술은 (가)의 <형식론 → 예술정의불가론, 제도론>과 같네요.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 인상>인가 봅니다.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상만을 가지고 예술을 비판하는 거죠. 즉, 예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 = 맥락>이죠? 맥락과 상관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 = 비평가가 받은 인상>대로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나) 지문 모두 **재진술**일 뿐입니다. 상위개념, 핵심정보, 주제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서술을 바꿔주면 돼요. 6평의 과제와 아주아주 똑같은 지문이었습시다. 정보량이 많고, 나열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이론들이 나온 배경과, 서술적 구조를 잘 파악하며 납득하려 노력했다면 이렇게 쉬운 지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 부분은 아예 정보량이 없네요. (가)에서 했던 얘기들만 주구장창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평가원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정보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